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

Antecedents of prosocial behaviors in preschoolers*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과
부교수 박 경 자

Dept.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Associate Prof. : Park, Kyung Ja

◀ 목 차 ▶

I. 서 론
II. 연구 방법
III. 연구 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Children's sex, temperament, and empathy were studied as antecedents of preschoolers' prosocial development. Eighty eight 5-, and 6-year-old children, 41 boys and 47 girls, were sampled in two kindergartens. Children's naturally occurring prosocial behaviors were videotaped in their classrooms for 21 minutes in 3 days. Teachers rated the children's prosocial tendency using a questionnaire. Empathy was measured individually with a picture/story measure, and mothers provided information on children's temperament using a questionnaire.

The two measures of preschoolers' prosocial behaviors, teacher ratings and free play observations, were moderately related. Girls were more prosocial in terms of helping/sharing/cooperation in both teacher-ratings and free-play observations. Preschoolers' adjustability was moderately related to the prosocial behaviors of children in both teacher-ratings and observations. Boys' verbal empathy was related to the observed prosocial behaviors.

I. 서 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발적인 행동으로 정의되는 친사회적 행동은 유아의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친사회적인 아동은 또래

들로부터 놀이 친구로서 더 많이 선택되며, 교사들에게도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Eisenberg & Fabes, 1998), 이러한 사회적 평가는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 개념 형성에 도움을

* 이 연구는 1994년도 연세대학교 학술 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주며 가치관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친사회적 행동은 유아의 정서적 발달 및 정서적 반응의 사회화에 있어 중요한 하나의 과정으로 연구되고 있다(Eisenberg, 1992). 이제까지 친사회적 행동을 연구한 선행 연구들은, 사회 학습 이론에 기초하여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있어 모델링의 효과(Trommsdorff, 1991), 정서 반응의 인지적 측면으로서 감정이입과 역할 수용 능력(Iannotti, 1985), 내적 통제 능력(최경순·정현희, 1997), 도덕적 추론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이옥경·이순형, 1996; Chapman, Zahn-Waxler, Cooperman & Iannotti, 1987; Eisenberg, 1986; Miller, Eisenberg, Fabes & Shell, 1996), 그리고 사회적 맥락 내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인과적 관계(Denham, 1986) 등을 탐색해 왔다.

이제까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유아의 성, 인지적·정서적 특성에 관한 개인 내적인 요인과, 유아의 사회화 과정에 관련된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상황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성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여아는 관계 지향적이며, 타인에게 더 반응적이고 감정 이입을 잘하며, 표현적 역할을 수행하며, 친사회적인 반면 남아는 독립적이며, 성취 지향적이고, 도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Parsons & Bales, 1955, Shaffer, 1994, 제인용). 그러나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연구들간에 일치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청년 후기와 성인들의 도움 행동에 있어서 성 차이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재분석한 Eagly와 Crowley(1986)는 여성이 더 친사회적이라는 사회적 기대와는 달리 남성과 여성간에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 차이가 별로 없으며, 특히 도구적 도움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타인을 더 많이 돕는다고 보고하였다.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 성에 따른 분석을 실시한 259개의 연구에 있어서 성 차이의 효과 분석을 실시한 Fabes와 Eisenberg(1996)는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친사회적이었으며, 친사회적 행동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어 도구적인 도움 제

공해 주기, 달래 주기, 나누기 보다는 타인에게 친절하고 배려해 주는 행동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친사회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유아의 개인 내적인 요인으로서 타인의 정서적 상태를 지각하여 나타나는 대리적인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되는 공감 능력 및 동정심은 유아의 이타적 행동을 증대해 주는 변인으로서 친사회적 행동의 선행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Hoffman, 1981). 감정 이입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은 초등 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비교적 일치하고 있으나 학령 전기 유아들에게 있어서는 친사회적 행동과 감정이입 능력의 관계에 있어 일치된 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양성은·정문자, 1995; Eisenberg, 1986; Honig, 1992; Iannotti, 1985; Krevans & Gibbs, 1996; Roberts & Strayer, 1996; Underwood & Moore, 1982). 이는 감정 이입이 친사회적 행동을 증대해 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하므로 어느 정도의 인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인지적 요인으로는 도덕적 추론 능력이 있다. 친사회적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인지 발달, 특히 도덕적 추론 능력이 발달해야 한다는 것은 선행 연구들에서 어느 정도 지지되고 있으며, 특히 도덕적 추론을 측정하는 갈등 상황이 친사회적 행동과 같은 맥락일 경우 그 상관 정도가 더 높다(Carlo, Koller, Eisenberg, Da Silva & Frohlich, 1996; Miller et al., 1996; Underwood & Moore, 1982).

개인의 성격적 요인, 특히 기질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감정 이입의 생물학적 기초가 된다. 이러한 성격의 특성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탐색해 보는 것은 친사회적 행동의 환경적 기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Eisenberg & Fabes, 1998). 기질은 정의적인 각성, 표현과 성격을 규제하는 측면으로서, 성격이 발달하는 정서적인 핵심이 된다. 기질과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에 있어 선행 연구들이 일치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아니나, 유아의 기질적 특성과 친사회적 행동이 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 친사회적인 유아

는 성인들에 의해 사회적인 기술이 있고 사교적이며 건설적으로 대처한다고 평가된다(Eisenberg, Fabes, Karbon, Murphy & Wosinski, 1996). 또한 친사회적인 유아는 자기 통제를 잘하고 충동성이 낮으며(최경순·정현희, 1997; Eisenberg & Fabes, 1998), 긍정적인 정서를 갖는다(Denham, 1986).

친사회적 행동의 사회화의 측면에서는 부모의 양육 행동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련성이 주로 연구되었다. 일반적으로 유아에게 변화하도록 요구하는 행동에 관해 이유를 설명해 주는 추론에 의한 양육 행동은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권연희·박경자, 1997; Hoffman, 1988; Krevans & Gibbs, 1996). 귀납적 추론은 유아가 학습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각성을 유도해 주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초래한 결과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그리고 유아로 하여금 타인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자신의 행동에 죄의식을 갖게 해 줌으로써 효과적이다. 추론의 방법 중에서도 성인 위주의 추론보다는 또래 수혜자 위주의 추론이,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보다는 긍정적인 정서에 호소하는 것이 초등 학교 저학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수행에 더 효과적이었다(Chapman et al, 1987; McGrath, Wilson & Frassetto, 1995). 또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행동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그리고 어머니가 사용하는 통계의 양은 친사회적 행동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권연희·박경자, 1997; Hoffman, 1975).

친사회적 행동의 사회화 측면에서 아버지의 양육 행동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도 연구되었다. 정현희와 최경순(1992)은 초등학교 5, 6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 특히 자녀의 사회성 지도와 놀이 상대 정도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즉 아버지가 자녀의 사회성을 지도하고 같이 놀아 주는 놀이 상대가 되어 주는 정도가 높은 집단의 아동들이 친사회적 도덕 판단 능력이 더 높았다.

교육기관에서 특별히 고안된 교육 활동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시도되

었고, 이러한 단기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였거나(신현옥·강문희, 1996),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여아의 방어적 행동, 남아의 공격적 행동이 유의하게 감소한(박경자·이재선, 1993)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으로서는 먼저 친사회적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의 정도와 종류가 있다. 이옥경과 이순형(1996)은 초등 학교 3,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부담의 정도가 낮을 때 친사회적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평가 여부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초등 학교 5학년 아동들은 타인에 대해 공감이 유발되면 사회적 평가 여부에 관계없이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였으나, 공감이 유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적 평가 여부와 성별이 상호 작용하여, 남아는 사회적 평가가 없을 때 그리고 여아는 사회적 평가가 있을 때 또래에게의 기부 행동이 증가하였다(양성은·정문자, 1995).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개인 내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아의 생물학적인 성, 생리적 기초를 갖는 기질적 특성, 그리고 인지적·정서적 특성인 감정 이입 능력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의 개인적인 특성 중에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살펴 보아 취학전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또한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측정된 친사회적 행동의 상관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동일한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다양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측정된 친사회적 행동은 서로 상관일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평정과 자유 놀이시의 행동 관찰을 통해 측정된 친사회적 행동간에는 상관 관계가 있는가?

둘째, 교사에 의한 평정과 행동 관찰에 의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의 관계는 성에 따라 어떠한가?

넷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아동의 공감 능력과의 관계는 성에 따라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시내에 있는 2곳의 유아 교육 기관의 3개 학급에서 표집된 5~6세 유아 88명이었다. 연구 대상 유아들의 평균 연령은 69.6개월 ($SD=3.6$)이며 남아가 41명, 여아가 47명이었다. 연령에 따른 남아 및 여아의 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연령과 성별에 따른 유아 수

	남아	여아	계
5세	22	32	54
6세	19	15	34
계	41	47	88

연구 대상 유아의 어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35.2 ($SD=2.9$)세, 아버지들의 평균 연령은 37.7 ($SD=3.4$)세이었다. 연구 대상 유아의 어머니 중 61%는 전업 주부이고, 아버지의 92%와 어머니의 78%가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59%와 직업을 가진 어머니의 77%가 관리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등 연구 대상 유아의 가정 환경은 중상류층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2. 연구 절차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자연적인 놀이 상황에서의 행동 관찰과 교사에 의한 친사회적 평정의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유아의 공감은 유치원의 빈방에서 개별적인 실험 상황에서 측정하였는데, 실

험자가 읽어 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감정을 말해 보거나, 자신의 감정과 같은 그림을 선택하는 공감 능력과, 이야기 속의 주인공의 감정과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그림을 4개의 얼굴 표정(행복, 슬픔, 화남, 무표정) 그림 중에서 가리키는 공감적 이해로 측정하였다.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용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였고, 이를 위해 유치원에서 유아를 통해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일주일 후에 수거하였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관찰을 위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아동학을 전공한 3명의 관찰자를 훈련하였고, 관찰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관찰자간의 일치도를 구하였다. 이를 위해 5~6세 유아 10명의 자유 놀이 행동을 비디오로 녹화한 후 2명씩 짝을 지어 관찰자 일치도를 구하였는데, 2명의 관찰자간의 일치도는 83~89%이었고 평균 86%의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3. 측정 도구

1) 친사회적 행동

① 자유 놀이 관찰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2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유치원에서의 실내 자유 놀이 시간 동안 유아가 나타내는 친사회적 행동을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각 유아를 하루에 7분 동안 3일간 총 21분의 자유놀이 행동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와의 긍정적 신체 접촉, 또래와의 애정적 상호 작용, 또래와의 긍정적인 언어적 상호 작용, 돕기/나누기/협동하기의 4가지 유형의 친사회적 행동을 관찰하였다. 유아의 행동은 30초 단위로 분석하였다.

② 교사 평정

유아의 주교사는 질문지에 의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평정하였다. 친사회적 행동 질문지는 또래들과 물건을 나누어 쓰거나, 도와주는 행동, 교사와의 동조성, 감정이입 능력을 묻는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교사는 유아들이 각 문항의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확실히 그렇다' (3점)까지 3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사의 친사회적 행동 평정 질문지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 $\alpha=.86$ 을 나타내었다. 교사 평정에 의한 친사회적 행동 평정의 하위 요인을 알아 보기 위해 공통 요인 분석에 의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개의 요인을 추출하여 각기 돕기와 감정이입(9문항, Cronbach $\alpha=.85$), 나누기(3문항, Cronbach $\alpha=.69$), 협동하기(3문항, Cronbach $\alpha=.61$)와 사회적 기술(3문항, Cronbach $\alpha=.67$)로 명명하였다.

2) 공감 측정

유아의 공감은 Eisenberg와 Lennon(1980)이 사용한 공감 측정 도구를 예비 조사를 거쳐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유아의 공감은 4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동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측정하는 공감 능력과, 주인공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공감적 이해의 두 가지 차원으로 측정하였다. 제시된 이야기 중 2개는 또래가 행복한 감정을, 2개의 이야기는 슬픈 감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이야기마다 3장의 그림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때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유아의 성과 일치하도록 하여 제시하였다.

유아의 공감 능력은 언어적인 반응과 비언어적 반응의 2가지로 측정하였는데, 언어적 공감 점수는 제시된 이야기를 듣고 유아가 언어적으로 부적절한 반응이나 무반응을 보이면 0점, 좋다/나쁘다 정도의 일반적으로 적절한 반응을 하면 1점, 이야기 주인공의 감정과 일치하는 반응을 하면 2점을 부여하여 3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유아의 비언어적 반응은 4개의 얼굴

표정 그림 중에서 자신의 감정과 같은 그림을 선택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는데, 이 때 유아가 이야기 속의 주인공의 감정과 다른 감정을 나타내는 그림을 선택하면 0점, 일치하는 그림을 선택하면 1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유아의 언어적 공감 점수는 0~8점, 비언어적 공감 점수는 0~4점의 점수 분포를 갖는다.

유아의 공감적 이해 능력은 제시된 이야기를 듣고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을 4가지 얼굴 표정 그림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여, 이야기 속의 내용과 일치하면 1점, 일치하지 않으면 0점을 부여하였다.

유아의 공감 측정에 있어 평정자간의 일치도를 측정하기 위해 10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2명의 평가자간의 평정의 일치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공감측정 척도의 4개 문항 중 한 문항의 공감적 이해 평정에서만 2명의 평정자 간에 불일치하였고, 3문항에서는 언어적·비언어적 공감 능력, 공감 이해의 평정에서 모두 일치하여 평균 96.7%의 일치도를 보였다.

3) 유아의 기질적 특성

유아의 기질적 특성은 천희영(1992)의 유아용 기질 평정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유아용 기질 평정 척도는 3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어머니는 각 문항이 자신의 자녀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기질 평정 척도의 하위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공통 요인 분석에 의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응성(11문항, Cronbach $\alpha=.84$), 활동성(8문항, Cronbach $\alpha=.78$), 생리적 규칙성(4문항, Cronbach $\alpha=.77$), 반응성(6문항, Cronbach $\alpha=.75$)의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를 요약하면 <표 2>

<표 2>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의 문항 수 및 Cronbach α

영역	측정 변인	평가자	평가 방법/문항 수	신뢰도
친사회적 행동	1. 행동 관찰	관찰자	실내 자유 놀이/21분 관찰	평균 일치도 = 86% Cronbach $\alpha = .86$
	2. 교사 평정	주교사	질문지 18문항	
아동의 특성	1. 유아용 기질 평정 척도	어머니	질문지 33문항	Cronbach $\alpha = .79$
	2. 아동의 공감 측정: 공감 능력, 공감적 이해	검사자	4가지 이야기	

와 같다.

III. 연구 결과

1. 교사 평정과 친사회적 행동 관찰간의 상관관계

교사가 평정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점수와 실내 자유 놀이 시간 동안 외부 관찰자에 의해 관찰된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표 3〉 참조). 전체적으로 교사 평정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찰 빈도 간에는 .43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교사 평정의 하위 요인과 행동 관찰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실내 자유 놀이 동안 관찰자들이 관찰한 돕기/나누기/협동하기의 빈도는 교사 평정에 의한 나누기, 돕기, 사회적 기술과 .27~.43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또래들과의 긍정적 신체 접촉, 애정적 상호작용, 그리고 언어적 상호작용의 빈도는 교사 평정에 의한 돕기와 사회적 기술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3〉 친사회적 행동의 교사 평정과 행동 관찰의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 계수

교사평정 행동관찰	행동관찰				전체
	나누기	돕기	협동하기	사회적 기술	
긍정적 신체접촉	.17	.29**	-.13	.34**	.26*
애정적 상호작용	.15	.38**	.11	.41**	.38**
언어적 상호작용	-.15	.23*	.19	.28*	.23*
돕기/나누기/ 협동하기	.27*	.43***	.22	.43***	.46***
전체	.05	.43***	.17	.48***	.43***

* $p < .05$, ** $p < .01$, *** $p < .001$

2. 성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교사 평정과 실내 자유 놀이 관찰에서 유아의 성별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에 대한 t 검증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유아가 나타내는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교사평정 결과, 총

54점 만점에서 남이는 평균 36.7($SD=6.5$), 여아는 41.7($SD=6.0$)을 나타내어, 교사들은 5~6세의 유치원 아동들도 비교적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이며,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인 경향을 유의하게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t(86)=3.70$, $p < .001$). 또한 교사들은 여아가 남아보다 돕기($M=20.8$ 대 $M=17.4$)와 나누기($M=8.0$ 대 $M=7.0$)를 유의하게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유치원의 실내 자유 놀이 시간 동안 유아들의 친사회적 행동을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여아($M=17.7$)가 남아($M=14.9$)보다 더 많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였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친사회적 행동의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유아들은 놀이실에서 또래와 긍정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을 가장 많이 하였고 긍정적 신체 접촉과 돕기/나누기/협동하기는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친사회적 행동 유형 중 또래를 돕거나, 나누기, 협동하기에서는 여아($M=12$)가 남아($M=0.6$)보다 더 많은 빈도를 보였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86)=2.37$, $p < .05$). 또한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 표준편차가 비교적 커서 개인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성별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교사 평정과 행동 관찰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		t
	남 $M(SD)$	여 $M(SD)$	
교사 평정	36.7(6.5)	41.7(6.0)	3.70***
나누기	7.0(1.6)	8.0(1.1)	3.15**
돕기	17.4(4.2)	20.8(3.4)	4.14**
협동하기	6.1(1.4)	6.5(1.6)	1.03
사회적 기술	6.4(1.7)	6.7(1.6)	0.87
행동 관찰	14.9(7.2)	17.7(9.6)	1.41
긍정적 신체 접촉	1.2(1.3)	1.6(2.1)	1.12
애정적 상호작용	4.8(3.5)	5.2(4.0)	0.39
긍정적 언어적 상호작용	8.4(5.2)	9.7(5.5)	1.10
돕기/나누기/협동하기	0.6(0.7)	1.2(1.6)	2.37*

* $p < .05$, ** $p < .01$, *** $p < .001$

3. 유아의 기질적 특성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유아의 기질적 특성에 있어 하위 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유아의 성별에 따른 *t*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기질적 특성의 4가지 하위 요인 별로 남녀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적응성, 규칙성, 반응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는 남, 여 유아가 비슷한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활동성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 남아($M=23.6$)가 여아($M=20.9$)보다 더 활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85)=3.49, p < .001$).

<표 5> 성별에 따른 기질적 특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남($n=41$)		여($n=47$)		<i>t</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적응성	32.4(4.7)	31.8(4.3)	-0.68		
활동성	23.6(3.9)	20.9(3.4)	-3.49***		
규칙성	12.8(2.0)	12.9(1.9)	0.33		
반응성	19.6(2.6)	20.2(2.4)	1.17		

*** $p < .001$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친사회적 행동과 관계가 있는가를 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 계수를 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유아의 적응성은 교사에 의한 친사회적 행동 평정과 놀이실에서의 친사회적 행동 관찰 빈도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적응성은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 교사 평정($r=.24$)보다는 놀이실에서의 또래 관계 행동 관찰($r=.37$)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기질적 특성의 하위 요인 중 활동성, 규칙성, 반응성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표 6> 유아의 기질적 특성과 친사회적 행동간의 상관 계수

기질	적응성			활동성			규칙성			반응성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교사 평정	.32*	.24*	.24*	-.01	.05	-.12	.06	.11	.09	.11	.01	.10
행동 관찰	.42*	.37*	.37***	.14	-.06	-.03	-.06	.18	.09	.15	-.03	.06

* $p < .05$, *** $p < .001$

4. 유아의 공감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유아의 성별에 따른 공감 능력 하위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7>과 같다. 유아가 제시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적 공감 능력은 8점 기준을 기준으로 볼 때 남($M=35$), 여($M=31$) 모두 중간 이하의 점수를 보여 이야기 속의 주인공의 감정에 대해 일반적으로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선택하도록 한 비언어적 공감 능력은 남아가 평균 26, 여아가 평균 24로, 4점 만점을 기준으로 볼 때 중간 점수 이상으로 주인공과 같은 감정을 지적하여 평균 이하의 평정을 얻은 언어적 공감 능력보다는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의 감정이 어떨지를 추측하도록 한 공감적 이해에서는 4점 만점에 남, 여 모두 3.7의 평균 점수를 보여 주인공의 감정을 거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대상인 5~6세의 유아들은 또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또래의 감정에 대해서는 거의 정확하게 이해하였으나, 자신은 그 또래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비슷한 감정을 갖는 정도의 공감 능력을 보였다. 그리고 또래의 감정을 추론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에는 아직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언어적 공감 능력과 비언어적 공감 능력, 공감적 이해에 있어 남·녀 유아간에 유의 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유아의 공감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아의 비언어적 공감, 공감적 이해는 교사 평정과 놀이실에서의 행동 관찰과 유의한 상관 계수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남아에게 있어 언어적 공감 능력과 놀이실에서의 긍정적인 신체적

〈표 7〉 성별에 따른 공감 능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남(n=41)	여(n=47)	t
	M (SD)	M (SD)	
언어적 공감 능력	3.5 (1.6)	3.1 (1.9)	1.07
비언어적 공감 능력	2.6 (1.3)	2.4 (0.9)	0.74
공감적 이해	3.7 (0.6)	3.7 (0.6)	-0.26

접촉($r=.44, p < .05$)과 애정적 상호작용($r=.42, p < .05$) 간에 유의 있는 상관 계수가 발견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사 평정과 놀이실에서의 행동 관찰의 2가지 방법으로 측정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간에는 .43의 비교적 높은 상관 계수를 보였다. 이는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일상적인 행동을 관찰하여 친사회적 행동 성향을 평정한 교사들의 평정과 외부 관찰자가 3일에 걸쳐 실내 자유 놀이 시간 동안 관찰한 유아들의 친사회적 행동간에 비교적 높은 상관관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자연관찰과 교사 평정간의 유의한 관계를 보인 연구들에 의해서도 지지되고 있다(Iannotti, 1985; Weir & Douvan, 1981).

첫째, 친사회적 행동 측정의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 관계에서는 유아들의 돕기/나누기/협동하기의 빈도를 측정한 외부 관찰자와 유아의 평소에 보이는 돕기와 사회적 기술에 관한 교사의 평정간에 가장 높은 상관 계수를 보였다. 반면에 자유 놀이 시간 동안 유아들이 보이는 또래와의 긍정적 언어적 상호작용이나, 신체 접촉, 애정적 상호작용은 교사가 평정한 유아의 사회적 기술과는 모두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으나 나누기나 협동하기와는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교사는 유아가 놀이실에서 또래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고 하여 이들을 친사회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친밀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친밀한 또래 관계를 유

지하는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나누기와 협동하기는 단순한 긍정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이나 신체적 접촉 이상의 구체적 행동을 포함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비슷한 하위 요인간의 상관 계수가 관련이 적은 하위 요인간의 상관 계수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결과는 두 가지 평가 방법의 신뢰도를 입증해 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둘째,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교사들은 여아가 남아보다 나누기와 돕기를 유의하게 더 많이 한다고 평정하였고, 이는 관찰 빈도가 많지는 않았으나 놀이실에서 여아가 또래와의 행동에서 돕기/나누기/협동하기를 남아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하는 것으로 관찰된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 연구들에서 특히 구조화된 실험 연구보다는 자기 보고나 교사, 부모 등의 보고에 의해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였을 때 여아가 남아보다 더 친사회적으로 보고되는 것과 일치한다(권현희·박경자, 1997; 양성은·정문자, 1995; 이옥경·이순형, 1996; 최경순·정현희, 1997; Fabes & Eisenberg, 1996). 교사 평정과 행동 관찰에서 모두 여아가 남아보다 돕기와 나누기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는 평정 척도의 특성, 즉 교사에의 동조성,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일반적으로 관계 지향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척도의 특성으로 인해 여아가 남아보다 더 친사회적으로 평정된다는 Zabatany (1985)의 주장으로 일부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시기에 아동들이 보이는 나누기, 돕기는 타인에게 도구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보다는 또래 관계에서 사회적 능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여아가 남아보다 또래에게 더 많은 도움과 나누는 행동을 보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셋째, 유아의 기질적 특성과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아의 적응성이 교사 평정과 또래 행동 관찰 모두에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특히 적응성과 또래와의 행동 관찰에서의 친사회적 행동간의 상관 계수가 평상시 유아의 친사회적 성향을 평가한 교사 평정보다 더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유아의 사교성은 자발적인 친사회적 행동과 상관이 있는 반면(Eisenberg, Pasternack, Cameron & Tryon, 1984), 수줍음은 특히 어린 유아에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방해한다는 선행 연구(Eisenberg et al., 1996)와, 친사회적 행동이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사회적 문제 해결력, 협동 등의 사회적으로 적합한 행동과 관계가 있으며(Farver & Branstetter, 1994), 취학전 유아의 감정이입적 반응이 또래들로부터의 인기도와 관계가 있다는 결과(Coie, Dodge & Kupersmidt, 1990)에 비춰 볼 때, 주변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환경, 주위 사람들에 쉽게 적응하는 적응성이 높은 유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며, 또래들과 쉽게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이것이 친사회적 능력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유아의 공감 능력은 친사회적 행동과 일반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상관을 보였으나, 남아의 언어적 공감 능력은 놀이실에서의 또래와의 긍정적인 신체적 접촉, 애정적 상호작용과 유의 있는 상관이 있었다. 이는 공감 능력이 남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 상관이 높다는 Roberts와 Strayer(1996)의 연구와 부분적으로는 일치한다. 그러나 유아의 공감 능력이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공감능력이나 이타심, 죄의식 등이 초등학교 아동의 돕기 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Miller 등(1996)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감정 이입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감정이입이 친사회적 행동의 선행 요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어야 하므로 어느 정도의 인지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양성은·정문자, 1995; Hoffman, 1981; Honig, 1982; Iannotti, 1985 등). 본 연구의 대상인 만 5~6세 유아들은 이야기 속 주인공의 감정을 거의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야기 속 주인공과 정확히 같지는 않으나 비슷한 감정 상태를 가지지만 이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령의 유아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기초하여 공감 능력을 발달해 가

는 시기이며, 이와 같이 발달하는 공감 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을 중재해 주기 시작하기는 하나 공감 능력이 아직 친사회적 행동의 선행 요인이 되지는 못하는 발달적 특징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추후에 종단적 연구나 발달적 연구를 통해 지지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에 기초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중상류층의 5~6세 유아를 대상으로 임의 표집하여 실시하였으므로 결과 해석에 있어 일반화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변인들간의 상관 관계의 제시에 그치고, 인과 관계의 분석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에 선행 요인이 되는 변인들을 밝히지 못하였다. 상관 계수는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려줄 뿐 변인들 간의 인과 관계는 알 수 없으나, 본 연구의 경우 이론적 근거와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기질이나 공감 능력 등 유아의 개인 내적 요인이 친사회적 행동의 선행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속 연구들에서 인과 관계 분석을 통해 이를 경험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아가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데 있어 부모의 양육 행동, 사회적 평가 등 아동의 특성을 중재해 주는 특성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유치원 연령만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적 경향이나 친사회적 행동을 중재해 주는 변인들의 발달적 효과를 검증할 수 없었다. 이를 위해 종단적 연구나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한 연구를 통해 발달적으로 어느 시기에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나 공감 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을 중재해 주는지를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친사회적 성향을 평가한 교사 평정과 실내 자유 놀이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관찰간에는 비교적 높은 상관 관계가 있다.

둘째, 여아는 남아보다 나누기와 돕기를 더 많이 한다.

셋째, 유아의 기질적 특성 중 적응성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

넷째, 남아의 언어적 공감 능력은 놀이실에서의 친사회적 행동 관찰과 유의 있는 상관성이 있다.

■ 참고문헌

- 1) 권연희 · 박경자. (1997). 친사회적 행동의 사회화에 있어 어머니 양육 행동의 역할.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1, 91-101.
- 2) 박경자 · 이재선. (1994).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연세대학교 어린이 생활지도연구원 1993년 보고서, 81-109.
- 3) 신현옥 · 강문희. (1996). 자신과 타인 이해 활동이 유아의 자아 개념 조망 수용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7(2), 121-139.
- 4) 양성은 · 정문자. (1995). 공감과 사회적 평가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6(2), 97-112.
- 5) 이옥경 · 이순형. (1996). 과제의 부담과 종류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 추론과 친사회적 행동. 아동학회지, 17(1), 275-288.
- 6) 정현희 · 최경순. (1992). 아버지의 양육 참여 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 판단 능력. 아동학회지, 13(1), 38-51.
- 7) 천희영. (1992).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행동.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8) 최경순 · 정현희. (1997). 유아의 내외 통제성과 사회적 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3), 231-243.
- 9) Carlo, G., Koller, S. H., Eisenberg, N., Da Silva, M. S. & Frohlich, C. B. (1996). A cross-national study on the relations among prosocial moral reasoning, gender role orientations, and prosocial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32(2), 231-240.
- 10) Chapman, M., Zahn-Waxler, C., Cooperman, G. & Iannotti, R. (1987). Empathy and responsibility in the motivation of children's help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3(1), 140-145.
- 11) Coie, J. D., Dodge, K. A. & Kupersmidt, J. B. (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17-59).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2) Denham, S. A. (1986). Social cognition, prosocial behavior, and emotion in preschoolers: Contextual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7, 194-201.
- 13) Eagly, A. H. & Crowley, M. (1986). Gender and help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social psychologic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100, 283-308.
- 14) Eisenberg, N. (1986). *Altruistic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Hillsdale, NJ: Erlbaum.
- 15) Eisenberg, N. (1992, Fall). Social development: Current trends and future possibilities. *SRCD Newsletter*, 1 & 10-11.
- 16) Eisenberg, N. & Fabes, R. A. (1998). Prosocial development. In W. Damon(editor in chief),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5th ed., N. Eisenberg(volume editor),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pp. 701-778). NY: Wiley.
- 17) Eisenberg, N., Fabes, R. A., Karbon, M., Murphy, B. C., Carlo, G. & Wosinski, M. (1996). Relations of school children's comforting behavior to empathy-related reactions and shyness. *Social Development*, 5, 330-351.
- 18) Eisenberg, N. & Lennon, R. (1980). Altruism and the assessment of empathy in the preschool years. *Child Development*, 51, 552-557.
- 19) Eisenberg, N., Pasternack, J. F., Cameron, E. & Tryon, K. (1984). The relation of quality and mode of prosocial behavior to moral cognitions and social style. *Child Development*, 155, 1479-1485.
- 20) Fabes, R. A., & Eisenberg, N. (1996). *An examination of age and sex differences in prosocial behavior and empathy*. Unpublished data, Arizona

- State University.
- 21) Fabes, R. A., Eisenberg, N., Karbon, M., Bernzweig, J., Speer, A. L. & Carlo, G. (1994). Socialization of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ding and prosocial behavior: Relations with mother's perceptions of children's emotional reactiv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0, 44-55.
 - 22) Farver, J. A. M. & Branstetter, W. H. (1994). Preschoolers' prosocial responses to their peers' di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0, 334-341.
 - 23) Hoffman, M. L. (1975). Altruistic behavior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937-943.
 - 24) Hoffman, M. L. (1988). Moral development. In M. H. Bornstein & M. E. Lamb(Eds.), *Developmental Psychology: An advanced textbook*. Hillsdale, NJ: Erlbaum.
 - 25) Honig, A. S. (1992, July). Research in review: Prosocial development in children. *Young Children*, 51-62.
 - 26) Iannotti, R. J. (1985). Naturalistic and structured assessments of prosocial behavior in preschool children: The influence of empathy and perspective-ta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1, 46-55.
 - 27) Krevans, J. & Gibbs, J. C. (1996). Parents' use of inductive discipline: Relations to children's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3263-3277.
 - 28) McGrath, M. P., Wilson, S. R., & Frassetto, S. J. (1995). Why some forms of induction are better than others at encouraging prosocial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1, 347-360.
 - 29) Miller, P. A., Eisenberg, N., Fabes, R. A. & Shell, R. (1996). Relations of moral reasoning and vicarious emotion to young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toward peers and adults. *Developmental Psychology*, 32(2), 210-219.
 - 30) Parsons, T. & Bales, R. F.(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es*. NY: Free Press.
 - 31) Roberts, W. & Strayer, J. (1996). Empathy,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449-470.
 - 32) Shaffer, D. R. (1994).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3rd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33) Trommsdorff, G. (1991). Child-rearing and children's empathy.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2, 387-390.
 - 34) Underwood, B. & Moore, B. (1982). Perspective taking and altruism. *Psychological Bulletin*, 91, 143-173.